

깨끗하게...

조계종총무원장 선거관련 설문·토론 잇달아

2009년 하반기로 예정된 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 선거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6개월여 남은 가운데, 제33대 총무원장을 바르게 선출해 불교 발전의 전기를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간선제인 현행 총무원장 선거 제도는 권력독점을 막고 종도의 참종권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1994년 종단개혁 때 도입됐다. 종단의 삼권분립과 교구자치제 등이 실현되면서 권력 독점을 막는 데는 성공했지만 과잉경쟁, 고비용 선거문화 등은 꾸준히 지적돼 왔다. 하지만 조계종 총무원장선거법은 1999년 10월 이후로는 개정되지 않았다. 비구니 승단의 종단 내외적 상황이 변화한 10여 년 동안 정제됐던 선거법을 두고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불교미래사회연구소(소장 법안)가 2008년 12월 조계종 스님 282명과 재가자 186명 등 4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관한 출·재가자 인식조사' (이하 인식조사) 결과는 총무원장 선거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보여주었다.

불교미래사회연구소의 이번 조사는 2006년 중앙총회 종현종법제개정 기초소위원회가 실시했던 설문조사 이후 총무원장 선거에 대한 종단 내 의견수렴으로는 유일하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총무원장의 중요자격요건 가운데 사회적 소통능력이 중요하다는 항목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86.3%에 달했고,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 척도로는 4.29점을 차지했다. 총무원장이 사회흐름에 맞게 움직여야 한다는 응답도 39.2%(3.19점)으로 비교적 높게 평가됐다.

하지만 조계종 사부대중들 다수(91.4%, 4.5점)는 선거제변경보다 부정 방지대책 강화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선거방식

을 폐지하자는 의견(66%, 평균 3.31점)과 선거 제도는 불가피하다는 의견(66%, 평균 3.30점)이 팽팽히 맞섰다. 이 가운데 응답자들은 △직선제나 추대제나, △선거인단 축소나 확대나 하는 선거 방식보다 금권선거와 매관매직 등 선거부정을 막아야 한다(평균 4.5점)는 규제강화에 관심을 보였다.

선거비용 일체를 선거관리기관이 부담하는 완전선거공영제 시행 시 도입돼야 할 제도에 관해서는 △후보자 선거공보(이력 및 공약소개)(84%) △등록된 선거운동원 외 선거운동 금지(82%) △후보자 공약의 교계인론 공시(81%, 4.06점) △후보자 공개토론회 실시(81%, 4.03점) △제공된 사무소와 선거사무소 개설 금지(78%, 3.90점)의 순이었다.

완전선거공영제를 통한 선거 통제장치로는 중앙에 청정선거신고센터 설치와 교구별 선거감시단 구성, 재야의 선거감시단 운영 등을 꼽았다.

불자들은 선거방식에 변화가 있다면 직선제 또는 원로(종정)의 권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40%의 응답자들은 직선제를 한다면 일정승합 이상의 직선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2006년 조사 당시 추대제와 직선제에 대한 응답률이 각각 36.7%와 35.8%였으나, 이번 조사에는 추대제가 6%대로 미미하게 나타났다.

또 '직선제로 하면 돈선거가 사라질 것'이라 주장에 3.32점(66%)을 줬고, '추대제로 하면 권력독점이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에는 3.56점(71%)을 줬. 돈선거와 권력독점을 막는 대안으로 직선제를 선택했다. 이상호 사무국장(실천불교전국승가회)은 "불자들이 승가의 전통으로 직접 민주주의 방식인 '대중공사'를 이상이 자 바람직한 현실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대제와 관련해서는 동국대 이사회의 이사장 선출을 예로 삼

한 정기간 대립이 시달리는 부자유가 드러났다는 점도 직선제에 무게가 실린 이유다.

직선제 실시에도 어려움이 있다. 계율 등에 의해 사부대중 각각의 구별이 확인하기 때문. 승가 사회 정서상 불가능에 가까운 직선제를 대중들이 '선거규제 강화'라는 대안으로 드러낸 것이 이번 조사결과와 특징이다.

하지만 올해 치러질 총무원장 선거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기대 수준이 상당히 낮았다. 절반에 달하는 49.4%가 이전과 똑같은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비구니에 대한 참정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65.8%로 높아진 것도 직선제 도입 여부를 떠나 조계종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한국불교의 수장이다. 대내적으로는 조계종 총무행정을 총괄하고, 대외적으로는 조계종단을 비롯한 불교계를 대표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총무원장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될 16일 조계종 임시중앙총회에 앞서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앞서, 재야단체들도 잇달아 토론회를 마련한다.

교단자정센터(대표 김희숙)는 3월 11일 오후 4시 만해NGO육성센터에서 '선거완전공영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선 토론회를 연다. 12일 오후 2시에는 불교미래사회연구소가 한국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불교의 미래를 담보할 총무원장 선거에 교계의 관심이 모아지는 때, 불자들의 불심(佛心) 가득한 중지와 이에 상응하는 중회의원 스님들의 지혜로운 결단을 기대한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나'를 찾아서...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는 출가제일(3.4)을 맞아 부처님 출가의 소중한 뜻을 기리기 위해 3월 4일 법당에서 주지 스님을 모시고 '출가제일(3.4-10) 참선정진'을 시작했다. 150여명이 동참한 입재식에서 명진 스님은 법문을 통해 "부처님의 출가는 '나'를 찾아 떠난 길이었다"며 "끊임없이 자신에게 묻고 또 묻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했다. 사진은 입재식후 참가자들이 참선에 든 모습.

승가대 총장에 태원 스님 2월 28일 이사회 표결서 선출



28일 제82차 이사회를 열고 조동섭 스님 후임 총장을 선출했다. 회의는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원종 스님(제주 관음사 주지)과 교수

조동섭 스님(제주 관음사 주지)과 교수 협의회가 추천한 태원 스님(승가대 불교학과)을 두고 비공개로 진행됐다. 표결 결과 태원 스님이 9표, 원종 스님이 1표, 기원 2표로 태원 스님이 중앙승가대 총장으로 선출됐다. 태원 스님은 1966년 해인사에서 지관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1971년 해인사 강원 대교과 졸업. 1976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졸업. 1988년과 1997년 일본 불교대학에서 석사과 문학박사 학위를 받은 스님은 중앙승가대 교수와 서울 정릉 보국사 주지를 맡고 있다.

조동섭 기자



선지식을 찾아서
▶ 11 태원 스님



도반의 향기
▶ 9 심용식

- ▶ 5 생활속 '능엄신주 독송'
- ▶ 10 부산은 벌써 봉축 물결
- ▶ 19 책으로 오신 큰스님들

현대불교신문사 홈페이지
'현불닷컴'을 열었습니다

www.hyunbul.com

제13회 만해대상 평화상 시린 에바디 변호사



이슬람권 최초의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이란 최초의 여성 판사를 지낸 시린 에바디

(62·사진) 인권 변호사가 만해사상실천선양회(총재·조계종 총무원장 지관)가 수여하는 제13회 만해대상 평화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만해대상심사위원장이 양승태 대법관은 3월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 어린이 등 약자의 인권개선과 이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등 세계평화를 위해 열정과 헌신을 보여준 시린 에바디 변호사를 만해대상 평화부문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만해대상 실천부문에는 이소선 민주화운동유가족 협의회 고문, 문학 부문 대상에 미국 계관시인 로버트 하스씨와 김종길 시인, 학술부문 대상에 김홍직 서울대 명예교수, 포교 부문 대상에 뽀나와로 스님이 각각 선정됐다.

시상식은 8월12일 오후 4시 인제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거행된다. 상금은 각 3000만원이다.

수상자 공적사항 8면에 김성우 기자

법구경

완성된 삶을 향해
나가는 사람은
영원히 깨어 있는 이다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울곧은 마음으로 친한 공양물만을 만드는
능인향당
향·조각·공양물

본사 02)3663-6777
(조계사 맞은편 02-730-6888 직영매장)

www.buddhabook.co.kr
02_953_7181
인터넷 불교서점
붓다북

책사키맛는
금강선원 뽕잎차

현대 불교 신문 연재
조동섭 스님의 뽕잎차 이야기

다들 물어, 고찰함,
현실복합성

NAVER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선원

뽕잎차
주 문 TEL 055) 931-9590

얼매때일 두리안 전문
**보이차, 각종 차류,
생활 도자기**

창달원
031)882-1357
전국 직접 배송



법문 및 정진
대표 스님 (활인선원장)

고난극복의 최상승 선체험 간화선의 길

참선대중화를 위한 정진대법회

통찰은 무량겁의 때를 한순간에 말끔히 씻는다

장 소: **활인선원** (www.hwalin.net)
대한불교조계종 제주원명선원 중앙연수원 행복제작소

날 짜: 입재 3월 13일(금) 10:30
회향 3월 15일(일) 16:00 (3일간 숙식가능)

접 수: **네이버카페 활인선원**
031)671-7707, 671-6610, 010-5042-5442

동참금: 10만원 (가족 1인 추가시 5만원)

깨닫고 시작하는 참선
참 나를 찾는 길, 최상승선, 간화선의 길,
삶의 궁극적 목표의 중요성, 바른 삶의 길,
올바른 화두참구 방법 간택,
신앙을 갖고자하는 분, 올바른 신앙의 길,
불교신앙의 보람, 화두 실참의 뜻,
고도의 정신적 신체적인 활동을 요하는 분,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운분,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분. 학생. 주부. 경영인
참선수행을 처음 시작하는 분,
참선을 망설이고 있는 분. 초심자
화두실참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13,14세(중2)면 가능

◆찾아오시는 길 (카페에 자세히)

- 대중교통 : 1. 서울에서 남부터미널, 동서울터미널 죽산행 2~30분마다 출발. 죽산에서 시내버스10번 4번째정거장 '한평' 하차
- 2. 서울 등지에서 다양한 버스이용, 용인버스터미널에 하차 후 시내버스 10번 '한평'에서 하차
- 고속도로 : 1. 서울에서 또는 지방에서, 중부고속 / 일죽죽산IC에서 10분 거리.
- 2. 경부경유 영동고속 / 양지IC에서 20분.
- 3. 지방에서 경부선 상경기/평택안성IC 30분

※ 서울은 입재일 아침 8시에 조계사앞에서 버스은행 - 승차회차시 사전연락

활인선원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667-3 ☎ 031)671-7707

